

认识泥性，认识自我——一个中国人在韩国的陶艺创作

原创 陈恩泽、余晖 陶瓷研究中华陶艺 2021-12-29 16:32

策划Planner/陈恩泽Ben Chen

文 Author/余晖 Sophia Yu

英文翻译 English Translator /余晖 Sophia Yu

韩文翻译Korean Translator/宋俊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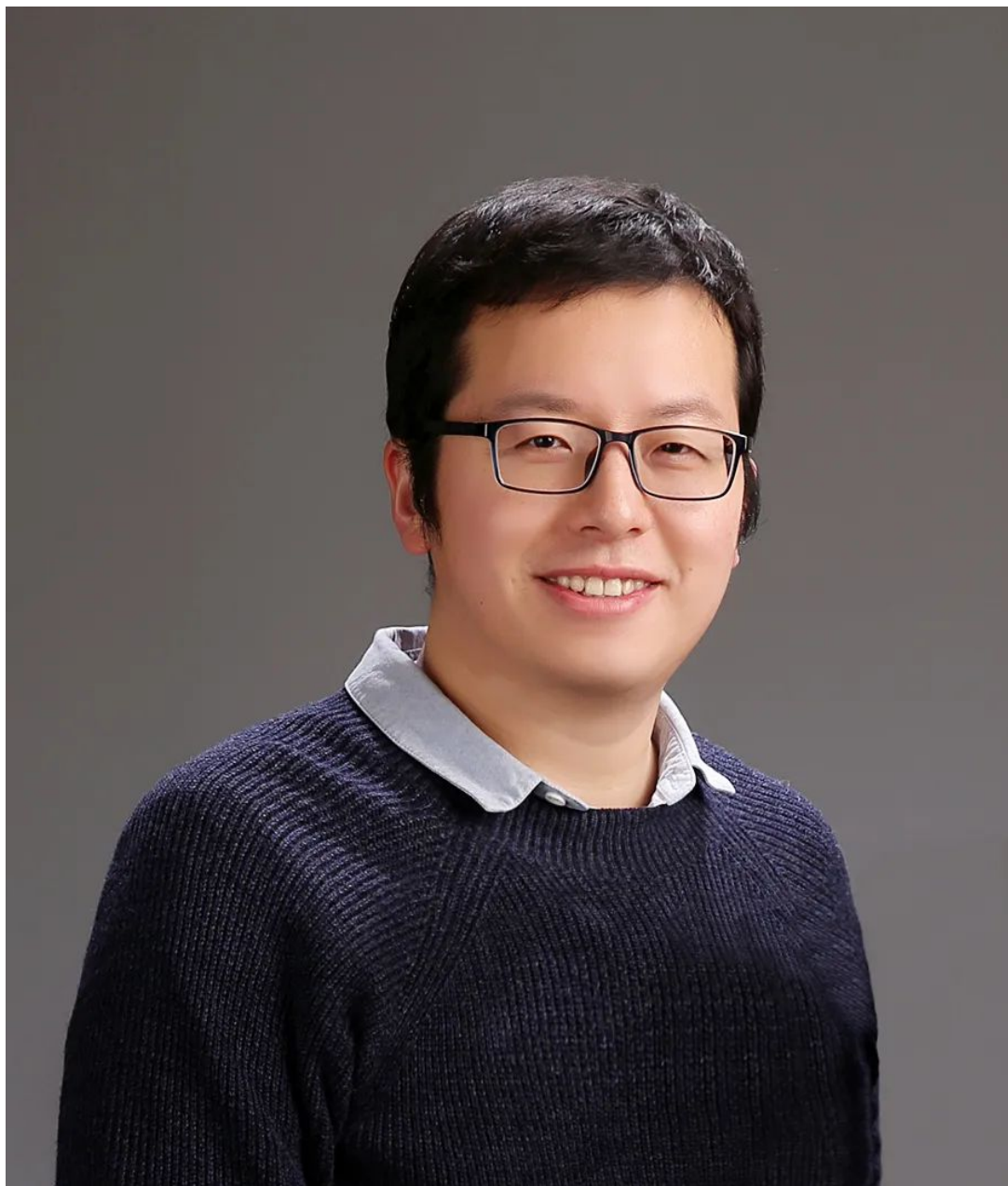
摄影Photograph/吴明轩 Wu Mingxuan、陈瑶 Chen Yao

戚振宇本科毕业于中国美术学院陶艺系，硕士毕业于景德镇陶瓷大学陶瓷艺术设计方向，师从金文伟教授，目前在韩国的檀国大学攻读现代陶艺造型方向的博士学位，师从韩国陶艺家金赫洙教授。

Qi Zhenyu graduated from Ceramic Art Department of China Academy of Art and post-graduated from Ceramic Art & Design Department of Jingdezhen Ceramic University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Kim Wenwei. Currently, he is a doctoral candidate in Modern Ceramic Art in Dankook University, S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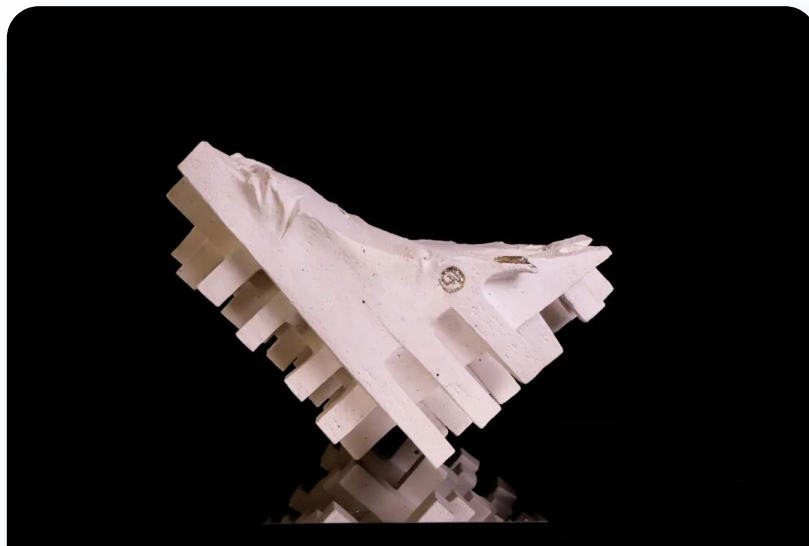
Korea, under the direction of well-known Korean ceramist,
Professor Kim Hyeog-soo.

취전위(戚振宇)는 중국미술대학 도예학과에서 학부를 마쳤고, 경덕진 도자기대학 금문위(金文伟) 교수에게 지도를 받으며 도예디자인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한국 단국대학교에서 한국 도예가 김혁수 교수에게 지도를 받으며, 현대도예 조형 전공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戚振宇博士

作品欣赏



秩序 I
造型土、化妆土
金箔, 45_45_30cm
氧化焰, 2021

秩序

图片左右滑动



秩序III

造型土、化妆土

金箔, 35_35_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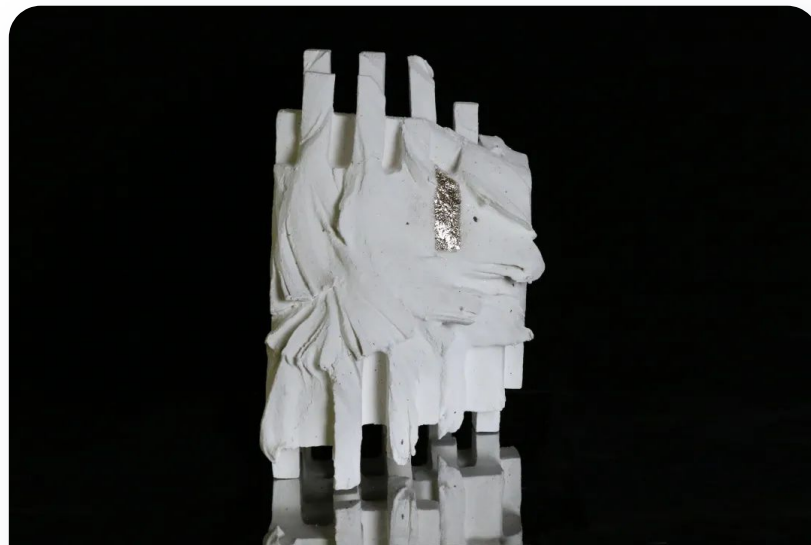
氧化焰

2021



秩序

图片左右滑动



秩序V

造型土、化妆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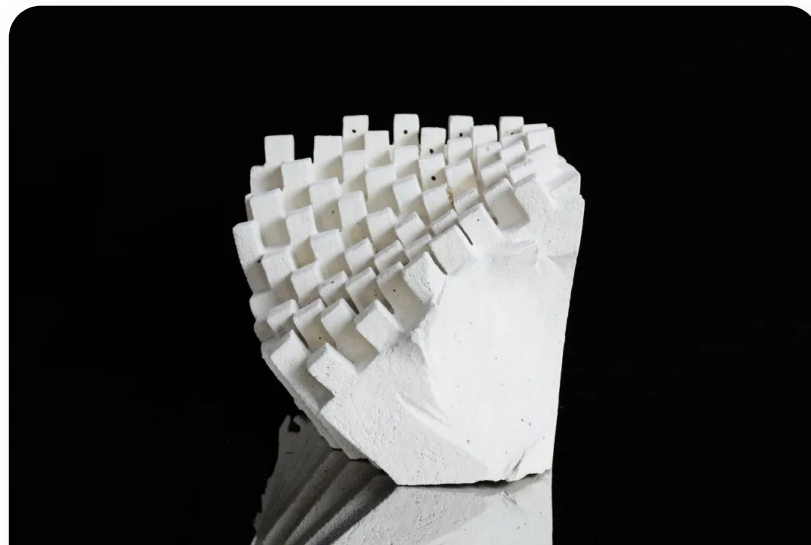
金箔, 45_30_30cm

氧化焰

2021

秩序

图片左右滑动



秩序VII

造型土、化妆土

金箔, 30_30_32cm

氧化焰

2021

秩序

图片左右滑动



秩序IX
造型土、化妆土
金箔,35_35_40cm
氧化焰
2021



秩序

图片左右滑动



秩序 XI
造型土、化妆土
金箔, 25_27_25cm
氧化焰
2021

秩序

图片左右滑动

2021年11月初，戚振宇在韩国仁首尔仁寺洞의인사아트프라자画廊举办了个人陶瓷雕塑作品展，这也是他第一次在海外举办个展。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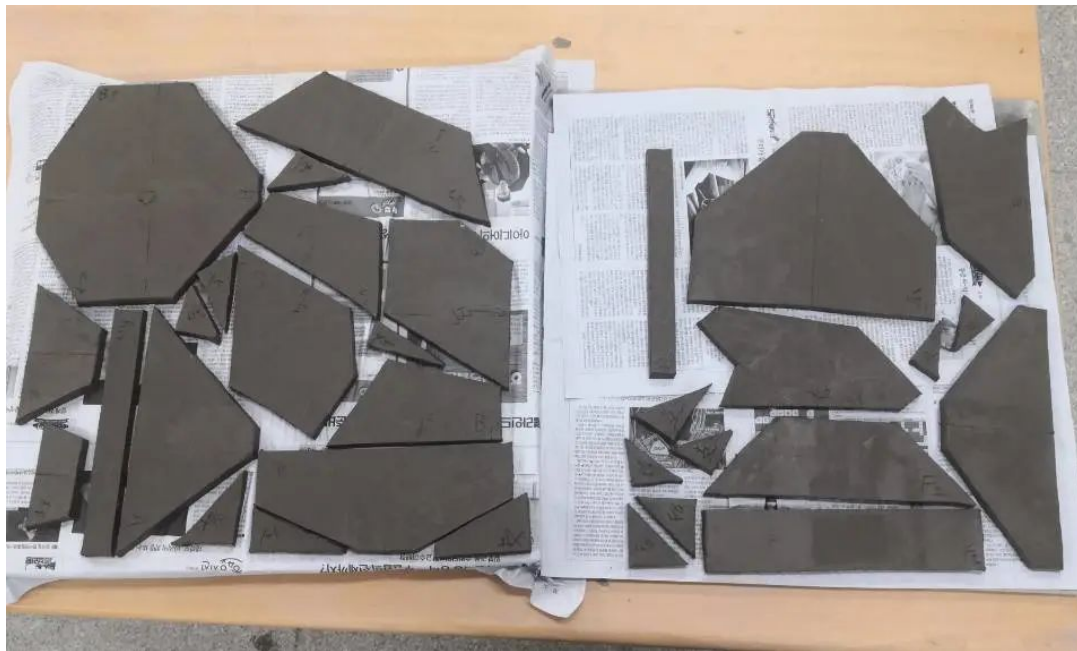
次展出的是他的“秩序”系列作品的一部分，个展主题为《构成与和谐》。

In early November, 2021, Qi zhenyu held his solo ceramic sculpture exhibition at 인사아트프라자 Gallery in Insa-dong, Seoul, South Korea, which was his first solo exhibition overseas. The exhibition is part of his "Order" series, the theme is "Composition and Harmony".

2021년 11월 초, 위전위는 한국 서울 인사동의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 서 개인 도자기 조각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그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개인 전시회이기도 하다. 해당 전시회에서 전시된 작품은 그가 제작한 “질서(秩序)” 시리즈 작품의 일부이며, 주제는 <구성과 조화>이다.

制作过程

1, 计算泥板尺寸



2, 切割泥板



3, 切割泥柱子



4，拼接各个部件

戚振宇早期创作了大量拉坯成型的器皿作品，主要表现的是泥性的柔软，而到韩国留学后，创作思路发生变化，用泥土来探讨刚硬与柔软的对比，表现某种对立又统一的矛盾感。他将泥条的矩阵排列造型解构又重组，表现泥性的刚硬，又用割线随意割出波浪纹曲面，表现泥性的柔软。戚振宇谈到，他喜欢建筑的严谨和秩序感，

同时也受到康定斯基带有音乐性的抽象作品的启发，借助立体构成的方法做刚、柔对比，探索陶瓷材料的韵律感和秩序感。为了强化造型上的对比，选用色彩比较单一的金属锰釉以及白色化妆土，突出作品的造型和结构，以及泥土材质的可能性。

In his early stage, Qi Zhenyu created a large number vessels made by wheel, mainly expressing the softness of clay. However, after studying in South Korea, he changed ideas from before, he used clay to discuss the contrast between hardness and softness, showing a sense of contradiction between opposites and unity. He deconstructs and recombines the matrix arrangement of clay strips to show the hardness of clay, and cuts wavy curved surfaces with wire to show the softness of clay. Qi Zhenyu said that he liked the preciseness and sense of order of architecture and was also inspired by Kandinsky's musical abstract artworks. He used three-dimensional shape to make contrast of hard and soft, to explore the sense of rhythm and order of ceramic material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ntrast shape, we choose a relatively simple color manganese

metal glaze and white Engobe to highlight the structure of artwork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clay.

쥘전위는 초기에 물레성형 기법으로 많은 그릇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그 작품들은 주로 점토의 부드러운 성질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창작에 관한 생각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는 점토를 통해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대비를 탐구하였고, 일종의 대립하면서도 통일된 모순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 그는 격자로 배열된 점토 조형을 해체한 후 재구성하여 점토의 단단한 성질을 표현하였고, 다시 절단선을 사용하여 손이 가는대로 파도 무늬의 곡면을 잘라냄으로써 점토의 부드러운 성질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쥘전위는 자신이 건축물의 빈틈없고 질서정연한 느낌을 좋아하지만, 이와 동시에 음악성을 지닌 칸딘스키의 추상 작품에 영감을 받았기에, 입체로 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대비를 나타내고, 도자기 재료의 운율감과 질서정연한 느낌을 탐구하였다고 했다. 그의 작품은 조형의 대비를 부각하기 위해서 색채가 비교적 단조로운 금속 망간 유약(釉药)과 흰색 화장토(化粧土)를 사용했으며, 이로써 작품의 조형과 구조, 그리고 점토 재질의 가능성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他一直秉承一个创作观念，被人忽视的细节里也蕴含着美感，他尽可能展示容易被观众忽视的地方，比如器物的底部、雕塑的底部

等。所以在布展的时候，特意将反光板放到作品底部，展示作品下半部分不容易被人看到的结构，矩阵排列的泥柱也在镜面的负空间中继续延伸。尤其让他惊喜的是，展厅的射灯把光反射到墙上，留下作品的投影，形成重叠迷幻的光影效果，使作品和展示空间产生了美学上的关联。

He has an artistic concept, there is beauty that hide in detail which is always been neglected. he wants to show place that easy been neglected as much as possible by the audience, such as the bottom of the utensils and sculptures . Therefore, when the exhibition is arranged, he the is placed reflectors at the bottom of the work deliberately ,to show structure of lower part of artworks that not easy to be seen by audience. The matrix of clay strips is also to be extended in negative space of mirror. In particular, he was pleasantly surprised to find that spot lightings in the exhibition hall reflected light onto the walls, leaving shadow of artworks, creating a mysterious atmosphere of light and shadow, creating an aesthetic connection between artworks and exhibition space.

그는 줄곧 한 가지 창작 관념 즉,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디테일에도 아름다운 느낌이 담겨있다는 생각을 고수해왔다. 그는 관객이 쉽게 지나치게 되는 기물의 밑단 또는 조각의 하단 등과 같은 부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힘썼다. 그리하여 전시회에서 작품을 배치할 때 반사판을 작품 아래에 설치했고, 이로써 잘 보이지 않는 작품 아랫부분의 구조를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격자로 배열된 점토 기둥은 거울의 네거티브 스페이스에서 끊임없이 확장하게 되었다. 전시회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전시장의 조명이 벽에 반사되어 작품의 그림자를 남겼고, 이 그림자들은 겹겹이 쌓여 몽환적인 조명 효과를 이루어 작품과 전시 공간은 미학적인 측면에서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在创作的过程中他反问自己，如果是用矩阵排列来表现泥土的秩序感，为何不选择3D打印？毕竟机械的精确性远远超过手工制作。但最终他还是选择纯手工制做，因为《秩序》系列作品需要一部分无意识创作的参与，这是机械不能做到的，也是手工制作不能被机械代替的原因。他需要用无意识的随意切割和有意识的矩阵排列来探讨泥性的刚与柔、韵律与秩序、感性与理性，这是认识自我矛盾的过程，也是对留学生涯的阶段性的总结。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se sculptures, he asked himself, if matrix arrangement is used to express the sense of order of clay, why not choose 3D printing? After all, mechanical accuracy is far better than manual manufacturing. But in the end, he chose to make it purely by hand, because the series of "Order"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some unconscious movement, which cannot be achieved by machinery, and this is exactly the reason why manual production cannot be replaced by machinery. He needs to explore the hardness and softness, rhythm and order, sensibility and rationality of clay by means of unconscious random cutting and conscious matrix arrangement. This is a process of understanding self-contradiction and a phased summary of his life of study in overseas.

그는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만약 격자 배열로써 점토의 질서감을 표현할 것이라면 왜 3D 프린팅을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기계의 정확성은 수작업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수작업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질서> 시리즈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무의식이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계

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수작업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절단하는 것과 의도적인 격자 배열을 통해 점토의 단단함과 부드러움, 윤율과 질서, 감성과 이성 등 성질을 탐구하였다. 이는 자아의 모순적인 부분을 인식하는 과정이자, 유학 생활이라는 단계에 대한 총정리이기도 하다.

在韩国的三年多时间里，戚振宇还参与了多项中韩两国大型环境陶艺的制作、安装、展示过程，积累了丰富的实践经验，亲历了中韩两国陶艺界的友好往来。他认为，中国和韩国都有上千年的陶瓷文化发展史，在现代艺术和西方文化的冲击下，都经历了对传统陶瓷艺术的反叛，并与西方文化激烈碰撞，开始了各自的现代陶艺探索之路。两国陶艺家面临共同的机遇和挑战，也同样展现出了探索精神。尤其在全球互联的大背景下，如何认识自我，如何展示本国的文化特色，如何在古老的陶瓷艺术中找到时代的脉搏，如何在后疫情时代适应新的创作环境，让两国在现代陶艺的探索之路上殊途同归。

Qi Zhenyu als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installation and display of a number of large-scale environmental ceramics artworks in China and South Korea for

more than three years, he has accumulated rich practical experience and witness the cultural exchanges between ceramic circles of China and South Korea. He believes that both China and South Korea have thousands of years of ceramic art history. Under the impact of modern art and Western culture, they both experienced the rebellion against traditional ceramic art and western culture, both two countries started their own exploration of modern ceramic art. They all face the sa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show the spirit of exploration.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global interconnection, how to recognize ourselves, how to display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our own country, how to find the pulse of our times in ancient ceramic art, how to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in the pandemic era, China and South Korea meets each other in the path of explore modern ceramic art.

한국에서 보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쥐전위는 한중 양국의 대형 환경도예를 제작, 설치, 전시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한중 양국 도예계의 우호적인 교류를 직접 체험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 “중국과 한국은 모두 1,000년이 넘는 도자기 문화의 발전 역

사를 지냈고, 현대 예술과 서양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전통 도예에 대한 반향을 겪었다. 게다가 서양 문화와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각각 현대 도예로 나아가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거시적인 배경에서 자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국의 문화 특징을 어떻게 선보이고, 오래된 도예에서 어떻게 시대의 발전 추세를 발견하고, 펜데믹 이후 새로운 창작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관한 해답을 찾게 된다면 한중 양국은 현대 도예를 개척하는 길에서 다른 길로 나갔지만, 결국에는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겼다.

个人简历

● 教育

2006年9月—2010年7月：本科毕业于中国美术学院陶艺系

2012年9月—2015年7月：硕士毕业于景德镇陶瓷学院艺术设计系

2019年3月 至今：博士就读于檀国大学陶艺系(预计毕业时间2022年2月)

● 会员

韩国陶瓷学会 会员

韩国基础造型协会 会员

韩国骊州国际陶艺作家协会 会员

武汉设计之都独立设计师联盟 会员

● 展览

2021年：“构成与和谐”陶瓷雕塑个展，首尔，韩国

2021年：“中国青·上林杯”国际青瓷艺术双年展，慈溪博物馆，宁波，中国

2021年：第10回南原国际陶艺家网络邀请展，南原，韩国

2021年：GIAF 2021 KSBDA 世宗特别展，首尔，韩国

2021年：第三届中国当代陶瓷艺术大展，江西，中国

2021年：“形式与色彩”泰国国际特别展，春武里，泰国

2021年：第三届敦煌国际设计周获奖成果展，敦煌，中国

2021年：2021韩国基础造型学会春季国际邀请展，木浦，韩国

2021年：22周年韩·中骊州国际陶艺作家协会展示会，骊州，韩国

2021年：第28回韩国陶瓷学会国际交流展，首尔，韩国

2020年：釜山中·日·韩陶瓷交流展，釜山，韩国

2019年：湖北省美展，湖北，中国

2018年：学院陶艺十年——武汉国际陶艺邀请展，湖北，中国

2018年：第十一届中国当代青年陶艺家作品双年展，浙江，中国

2017年：走进校园——第五届湖北省现代陶艺作品展 湖北，中国

2017年：亚洲之未来——当代陶艺展，利川，韩国
2016年：第十届中国当代青年陶艺家作品双年展；浙江，中国
2016年：第四届中国西部陶艺双年展，四川，中国
2016年：第二届中国当代陶瓷艺术大展，北京，中国
2015年：澳门-景德镇陶艺交流展，澳门，中国
2014年：提壶观顶——2014年国际壶艺交流展，湖北，中国

● 获奖

2021年：BICC中英国际创意大赛 雕塑《秩序 No.1》获铜奖
2021年：BICC中英国际创意大赛 雕塑《秩序 No.2》获铜奖
2021年：BICC中英国际创意大赛 雕塑《秩序 No.3》获铜奖
2021年：GBIDA国际金方杯创意设计大奖赛 雕塑《动词系列—绑 No.9》获优秀奖
2021年：GBIDA国际金方杯创意设计大奖赛 雕塑《动词系列—拧 No.6》获入围奖
2021年：GBIDA国际金方杯创意设计大奖赛 雕塑《动词系列—缠 No.5》获入围奖
2021年：第三届中国当代陶瓷艺术大展 雕塑《动词系列—绑 No.9》入选

2021年：新加坡金沙艺术设计大赛，《动词系列—拧 No.6》获优秀奖，新加坡

2021年：新加坡金沙艺术设计大赛，《动词系列—皱 No.1》获铜奖，新加坡

2021年：新加坡金沙艺术设计大赛，《动词系列—绑 No.9》获铜奖，新加坡

2021年：第三届“敦煌国际设计周”设计大赛，《原 The Origin》入选，甘肃，中国

2021年：香港当代设计奖“春季赛”，《山石·覬》获铜奖，香港，中国

2020年：中国包装创意设计大赛，《影山》获二等奖，中国

2019年：2019 Craft Make A Ton 设计比赛，作品获银奖，骊州，韩国

2019年：京畿美术展，《源系列》获优秀奖，韩国

2019年：2019第48届全国大学生设计大展，《源系列》获特等奖，韩国

2016年：第三届南京‘紫金奖’创意设计大赛，《山石·覬》获入围奖，江苏，中国

2014年：首届江苏文创设计大赛，《业》获入围奖，江苏，中国

2014年：第六届国际大学生雪雕大赛，《自观自在》获一等奖，
黑龙江，中国

● 作品收藏

2017年，《行》系列3，檀国大学收藏

2014年，《却月壶》，湖北美术学院收藏

● 发表论文及作品

1，作品《行》、《却月壶》，《美与时代·美术学刊》，2015年
01期

2，《韩国与中国大学陶艺教育的现状比较研究》，韩国陶瓷学研究，KCI（Korea Citation Index 韩国核心期刊），ISSN1738-
8473, 2020.12

3，《环境陶艺的观念美与形态美研究》，陶瓷, ISSN: 1002-
2872, 2021, 11

4，《玻璃粉对黏土的影响以及在陶艺创作中的应用》，陶瓷,
ISSN: 1002-2872, 2022, 01

5，《环境陶艺的色彩美与肌理美研究》，陶瓷, ISSN: 1002-
2872, 2022, 03

6, 《浅析中韩高校陶艺教育的异同点》, 陶瓷研究, ISSN: CN
36-1136/TQ, 2022, 04



中华陶艺

为你第一时间提供业内资讯
有意者请联系

喜欢此内容的人还喜欢

收藏级的紫砂壶，门槛很高？

紫砂中国



李文跃、吴天麟大师谈酒店瓷博会 | 创新展陈模式 突破

市场巨阳
读瓷



邮话：高山花卉～绿绒蒿

邮来币往

